



## 동물의 말을 이해하는 의사, 닥터 돌리틀

천 명 선 수의학 박사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은 동떨어진 우주 공간에 홀로 성립된 학문이 아니다. 사회와 문화와 역사는 수의학을, 그리고 수의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Veterinary Medicine in Culture'라는 제목하에 다양한 소재를 통해 수의학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Dolittle[dúlittl] (구어)n. 게으름뱅이, 나태한 사람

### 두 번째. 동물의 말을 이해하는 의사, 닥터 돌리틀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동물의 수호성인이라고 불린다.

그는 동물을 '형제'라고 부르며 정성으로 돌보았고, 동물들은 또한 그를 잘 따랐다고 전한다. 그가 한 무리의 새에게 설교를 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동물과 소통 하는 것은 이처럼 성인을 통해서나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이다. 인간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그다지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던 고대의 신화에는 인간의 머리를 한 신들을 비롯해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 사람의 말을 하는 동물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혹시 고대의 그 언젠가는 동물과 인간의 소통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마치 바벨탑이 무너진 것 같은 어떤 계기로 더 이상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말이다. 이런 상상은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니다.

### 돌리틀 선생, 동물의 말을 배우다

의사선생 돌리틀(Dr. Dolittle)씨는 영국의

작은 마을(Puddleby-on-the-Marsh)에 산다. 사람보다 동물을 더 좋아해서 온갖 동물과 함께 사는 이 사람 좋은 의사선생은 수입의 모두를 동물 친구들에게 써버린다.

진료실마저도 동물들로 가득 차 정신이 없고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은 점점 줄어 고작 물약이나 받으러 오는 한 명의 환자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날 그 마지막 환자가 돌리틀 선생에게 동물 의사가 되어 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는 것을 들은 앵무새인 폴리네시아가 선생에게 동물의 말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마침내 열심히 새의 언어, 개의 몸짓 언어, 말의 언어를 배우게 된 돌리틀 선생에게 온 동네 동물들이 하소연을 하러 찾아온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 해결하는 건 시간문제. 돌리틀 선생은 동물 의사로서 다시 유명 인사가 된다. 물론 정식 수의사면허는 없지만 말이다.

영국계 미국인으로 전쟁 중에 군마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을 하다가, 이 동

화를 쓰게 되었다는 휴 로프팅(Hugh John Lofting, 1886~1947)은 이 동화로 미국의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인 뉴베리 메달을 받았다. 그는 처음 작품인 'The Story of Doctor Dolittle (1920)' 이후 돌리틀 선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연작시리즈를 계속 발표했고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순수하고 동물을 잘 이해하는 돌리틀 선생의 캐릭터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돌리틀 선생의 이야기는 영화와 TV 시리즈로도 제작되었는데 가장 최근의 작품이 1998년에 선을 보인 '닥터 두리틀'이다. 상황과 줄거리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의사인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동물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 설정을 그대로이다. 좀 더 오래된 버전으로는 렉스 해리슨이 돌리틀 선생으로 분한 1967년 뮤지컬 영화 'Doctor Dolittle'이 있다. 이 영화 속에서 고풍스러운 실크햇을 쓴 돌리틀은 로프팅이 직접 그렸던 원작의 삽화와 비슷하여 친숙함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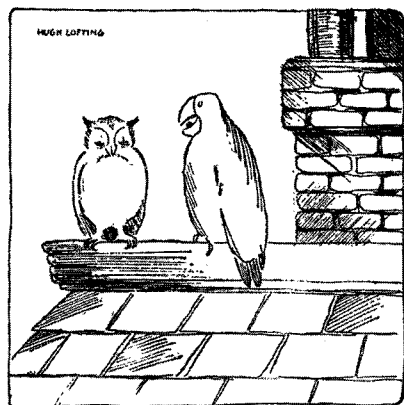


그림 1. 돌리틀 선생의 앵무새 폴리네시아와 부엉이 투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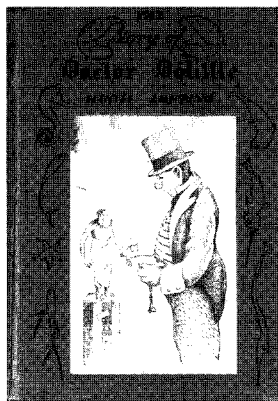


그림 2. The Story of Doctor Dolittle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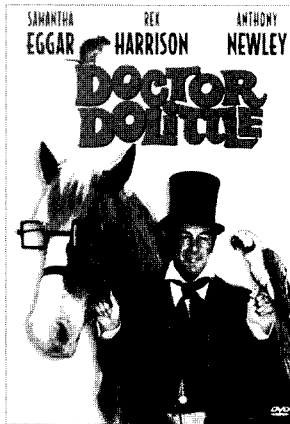


그림 3-1 / 3-2. Doctor Dolittle (1967, USA)

언어가 없는 동물은 윤리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동물의 무리를 연구하는 생태학자들은 어떤 동물에게도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한다.

서로 다른 종이 내는 신호에서도 유사성이 보여서, 공격자인 매를 보았을 때 참새목의 네 종류 조류가 내는 신호는 주파수로 분석해 보았을 때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처럼 복잡한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것은 아닐 것이다. '동물과의 대화' 라는 주제로 출판된 책들은 대개 동물을 이해하기 위해 그 습성을 연구하는 생태학적 자료이거나, 때로는 매우 개인적인 체험을 다루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까지는 서로 다른 종의 동물들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인사를 하고 짧은 몇 가지 단어를 구사하는 앵무새나 구관조도 사실은 그냥 비슷한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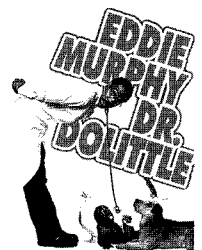


그림 4-1 / 4-2 / 4-3. Doctor Dolittle (1998, USA)

를 흉내 내는 것일 뿐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동물의 말과 사람의 말을 모두 구사하는 돌리틀 선생의 앵무새인 폴리네시아는 아쉽게도 상상의 산물일 뿐이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돌고래일 지라도 생선 토막 없이 말로 설득해서 재주를 넘게 할 수는 없다는 것.

한편,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동물은 이성이 없으며 이는 동물에게는 언어가 없다는 것으로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은 일종의 기계와 같아서 사람의 언어와 비슷하게 흉내 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의식을 반영한 진정한 의미의 언어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동물이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수 세기 동안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에 관한 토론의 장에서 가장 먼저 지탄의 대상이 되는 데카르트 주의에 입각한 동물윤리관이다.

후에 벤담은 ‘동물이 이성이 있거나 말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할, 동물을 윤리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공리주의적 해석을 내놓았다.

### 수의사는 동물과 소통하기를 꿈꾼다

얼마 전 방영된 미국 시트콤에 재미있는 일화가 한편 나왔다.



화가로서 재능이 없어 버려진 여자 주인공의 그림을 동물병원에 걸었더니 동물 환자들이

안정을 취하더라는 것이다.

동물과 인간의 시각적 인지가 다르니만큼 우스꽝스러운 설정일 따름이지만, 그 그림들을 사서 모든 진료실에 거는 시트콤 속의 수의사는 나름 진지하다.

모든 수의사들의 희망이 아닐까? 내 환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서 편안하게 해주고,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말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선의 수의(獸醫)들도, 그리스의 유명한 히피아터(馬醫)들도 모두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한탄하면서 우리의 지식을 더욱 갈고 닦아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동물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상상을 해본다. 돌리틀 선생의 진료실에서처럼, ‘엿그제부터 배가 살살 아파요, 아마 그 전날 먹은 태국산 연어 통조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라고 말하는 고양이 환자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관절이 영 시원치 않아’라고 말하는 노견 환자를, ‘우리 고향에서는 이렇게 습도가 높지 않았거든, 아무래도 피부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요즘 저녁식사로 나오는 닭고기는 냉동이던데 생닭은 안될까?’라고 불평을 늘어놓는 동물원 사자 환자를 상담하는 건 정말 재미있지 않을까?

사실, 집에 홀로 있는 새끼 고양이에게 전화해서 가끔은 물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한다. "잘 놀고 있니?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집에 갈 때 연어 통조림 사가지고 갈게!"   **수**